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 피해 보상 뒤 남은 거액의 부담, 사고 책임에 따라 나눈다.

**구상금 약 9억 7,331만 원 인용**

구상금 인용

보상금 지급 이후 운영자의 책임 부담 인정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구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312,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통학차량 안에 남겨진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차량 운행 측과 유치원 운영 측 사이에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사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어야 했습니다.

먼저 보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의 의무와 인솔·하차 확인을 담당한 교직원의 의무를 구분하고, 각자의 책임을 금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운전자 측 책임을 30%, 유치원 교직원과 운영자 측 책임을 70%로 보았습니다. 원아를 내려 주고 차량에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에서 교직원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자가 통학 경로나 운행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인솔 업무와 차량 운행의 관계를 구분했고, 운영자에게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응의 핵심

법원은 운전자 측 책임을 30%, 유치원 교직원과 운영자 측 책임을 70%로 보았습니다.

**통학차량 사고 뒤 남은 책임, 먼저 보상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통학차량 사고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 해울은 약 9억 7,331만 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통학버스 사고에서 운전기사와 인솔자의 책임이 엇갈린다면?
- 아이의 하차 확인을 누가 맡았는지 다투고 있다면?
- 유치원과 운송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보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치원 운영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사고에 관여한 각 주체의 의무와 책임 비율을 연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했다는 주장과 보험상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부담한 보상금 중 상대방이 부담할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에게 **973,312,228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가 제외되었으나 거액의 보상금 중 상대방의 책임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 보상 이후 별도로 남는 책임 부담 문제를 다룬 결과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먼저 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지급 근거와 상대방의 책임을 정리하면 구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과의 핵심

통학차량 사고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 해율은 약 9억 7,331만 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통학차량 사고로 지급한 거액의 보상금. 해율은 약 9억 7,331만 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차량 보험 처리 후에도 손해 부담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 안전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책임을 부인한다면?
- 통학차량 사고의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